

OECD 개발원조 고위급회의의 결과

I. 제44차 OECD DAC 개발원조 고위급회의가 2006.4.4-5 OECD 사무국에서 개최되어 non-DAC 공여국과의 협력, 원조규모 확대, 취약국가 문제, 빈곤층을 위한 성장문제, 인도주의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바, 주요결과를 아래 보고함. (우리측은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 박석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등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관계자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

폴란드는 적절한 시점에 DAC 가입 추진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하였음.

- 일본 등 다수 DAC 회원국들이 중국 등 신흥공여국의 개발원조정책이 ODA 관련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잘못된 개발원조 제공은 시장왜곡 및 수원국의 거버넌스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

2. 관찰 및 평가

1. 핵심 내용

-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 3월 대통령께서 발표한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의 주요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DAC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음.
- DAC 회원국 대표들은 현재 DAC에 미가입한 OECD 회원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DAC 가입을 유도해 나갈 예정임을 밝힌 바, 우리나라와
- 금번 OECD DAC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정부가 적절한 시점에서 DAC 가입추진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언급한 바, Schieck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국이 이미 DAC 회원국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DAC 가입 추진이 가시화되는 경우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일본 등이 중국 등 신흥공여국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ODA 제공에 대한 비판이 증대됨에 따라 DAC 가입이전에도 우리의 ODA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발원조 고위급회의 등 정례적 DAC 회의에 우리 고위급 대표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DAC 회원국 대표들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우리 ODA 정책 선진화 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회의 상세결과

가. Non-DAC 공여국과의 협력을 주제로한 수석대표 만찬 (4.4)

1) 우리측 수석대표 발언 내용

- 이규형 외교통상부 차관은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신흥공여국들이 DAC의 ODA관련 가이드라인을 착실하게 준수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신흥공여국의 ODA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함.
- 한국의 경우 ODA 규모는 일부 DAC 회원국보다 더 크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으나, ODA 정책, 평가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바, 향후 적절한 시기에 DAC에 가입추진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ODA 정책을 선진화시키고 DAC내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DAC는 한국 등 Non-DAC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outreach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DAC 회원국들의 경험을 bench-marking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 한국정부는 국무총리주재하에 ODA 정책의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를 비롯, 재정경제부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ODA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음을 설명함.

■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인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 제공관련 우리정부는 대통령령에서 지난 3월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대아프리카 개발원조를 2008년까지 3배로 확대하고 연수생 초청 등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했다고 밝힘.

■ 신흥공여국들은 각자의 경험에 기반한 ODA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후발 개도국들에게 기존 선진공여국들보다 더욱 생생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바, 한국의 경우 인적자원개발(HRD)에 집중한 ODA 정책이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함.

2) 각국 발언내용

■ Van Ardenne-Van Der Hoven 네덜란드 외교부 개발협력장관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로 인해 ODA 분야에서도 중요한 player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OECD가 인도, 중국 등 신흥공여국과 ODA분야에서 outreach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Sato 일본 외교부 경제협력국장장은 중국 등 신흥공여국의 ODA 제공이 기존 선진공여국의 ODA 정책과 달리 다소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바, DAC는 신흥공여국과 ODA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함.
- Roeskau OECD 개발협력국(DCD) 국장은 신흥공여국들이 DAC 회원국들이 범한 기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non-DAC 공여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공여국들이 참여하는 비엔나회의와 4.6~7 러시아 정부 주최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신흥공여국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Wisniewski 폴란드 외교부 정무차관은 폴란드의 ODA/GNI 비율이 2005년 0.09%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까지 0.17%를 달성할 계획임을 밝히고, 수치면에서는 기존 DAC 회원국보다 작지만 폴란드 고유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ODA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 Akasaka OECD 사무차장과 Roeskau OECD 국장은 중국의 경우 정치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ODA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바, DAC의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이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Schieck USAID 처장대리는 신흥공여국들과 동류의식(likeminded)이 점증하고 있으며, 여러 현황과 ODA 내용을 검토할 때 한국의 경우

이미 선진공여국 그룹내에 포함(In the club)되어 있다고 평가함.

- Roeskau OECD 국장은 NGO 등 다양한 개발원조분야 행위자들을 포함한 OECD 개발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개발에 관한 ECOSOC 포럼 등 개발관련 국제적인 포럼이 금년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나. 제1세션 : 원조규모 확대 (4.5)

1) 우리측 수석대표 발언내용

- 제2차관은 우리정부가 2005년 11월 종합적인 ODA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ODA/GNI를 2009년까지 0.1% 및 2015년까지 0.25% 규모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의 ODA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선진공여국 및 다자개발기구 등과 공동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DAC 가입 추진을 조속한 시기에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Manning DAC 의장은 우리나라와 ODA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2) 각국 발언내용

- Manning OECD/DAC 의장은 원조규모의 확대에 따라 공여국간 원조규모 확대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무회의를 6월중 개최할 것이라고 언급함.
- Leipziger World Bank 부총재는 UNDP와 원

조규모 확대 공동 T/F를 구성하여 수원국 중에서 Poverty Reduction Strategy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발정책을 수행하는 모범케이스를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함.

- Schieck USAID 차장대리는 각국의 예산절차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원조규모를 밝히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함. 또한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을 위해서 수원국의 performance를 고려하여 ODA를 제공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Millenium Challenge Account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함.
- Plant IMF 수석자문은 대규모 원조의 제공이 인플레이션 유발 등 수원국의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 덴마크는 개발원조 자금이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어 aid orphan 국가 및 aid darling 국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이 미래 ODA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영국은 수원국의 거버넌스 악화에 대해서 공여국이 미래 제공될 원조의 감축, 원조제공을 basic need 충족을 위한 용도로 변경, 현재 원조 감축 등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 벨기에는 장기적으로 LDCs 국가의 MDGs 달성을 위해서는 ODA 수원국 리스트에서 중저소득국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

고, 수원국의 ODA 적격성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 장관급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내년도 장관급 회담 개최방안을 지지함.

다. 제2세션 : 취약국가 이슈를 주제로 한 실무 오찬 (4.5)

- 네덜란드는 취약국가에 대해서는 외교, 국방, 개발 등 3자간 공동 협력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아프간 및 이라크 지원, 쓰나미 지원, UN Peace Building Commission 등이 외교 및 국방분야간 공동 지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DAC은 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적지원 이후 ODA 제공을 통해 취약국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라. 제3세션 : 인도주의적 지원 (4.5)

- 각국은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모범사례” (DCD/DAC(2006)13REV2)를 채택하고 쓰나미 사태 등 대형재난이 있을 경우 각국 원조기관, NGOs, 다자개발기구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UNOCHA는 UN 주도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조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GHD 채택을 환영함. 특히 CERF에 대한 우리 정부의 5백만불 지원 등 각국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마. 제4세션 : 빈곤층을 위한 성장 (4.5)

1) 우리측 발언내용

- 박석범 국제경제국장은 빈곤층을 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을 위한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보조금 축소, 무역관련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 또한, 이를 통해서 개도국의 무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개도국내에서 무역을 통해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지원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역량강화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함.

2) 각국 발언내용

- 각국은 “빈곤층을 위한 성장을 위한 Policy

Statement”(DCD/DAC(2006)12/ REV3)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공여국들의 지원을 약속함.

- 빈곤층의 경제성장 단계에서의 참여,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방안 등 빈곤층을 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됨.

II. 제2차관은 표제회의 참석계기 Melkert

UNDP 부총재와 4.4(화) 별도 양자면담을 갖고 우리 ODA정책의 다각화를 위해 UNDP 등 다자개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UNDP 협력협정을 체결코자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4.24-25 ECOSOC 회의 참석차 방미계기 서명(또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미계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 이에 대해 UNDP 부총재는 우리의 공동협력 제안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 동 협정에 대한 문안검토를 조속 마무리하여 4.25 UNDP에서 협정의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